

## 농촌지역 유치원 혼합연령반의 서로 다른 위험요인을 가진 두 누나의 역할 경험

Role Experiences of Two Elder Sisters who have Different Risk Factors  
from the Rural Mixed-age Preschool Class

정계숙(Kai Sook Chung)<sup>1)</sup>

고은경(Eun Kyoung Goh)<sup>2)</sup>

견주연(Ju Youn Kyun)<sup>3)</sup>

### ABSTRACT

This study inquired into the life and experiences of two elder sisters who have different individual and familial risk factors and their younger brothers from the mixed-age preschool class through ethnographic research method using participant observ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an elder sister from low-income multi-children family played her role very actively through caring for, learning and playing with younger brother during almost of the play situations. On the other hand, the other elder sister who has experience of depression, showed strong possessiveness and neglect of younger brother. As for psychological aspects of sibling relationship, the elder sisters were suffering psychological stresses resulted from excessive role expectation in family or from self-recognition on elder sister role, respectively.

**Key Words** : 유치원 생활(kindergarten life), 위험요인(risk factors), 누나역할(elder sister's role), 심리적 경험(psychological experience).

<sup>1)</sup>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sup>2)</sup>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부산대학교 어린이상담실 상담원

<sup>3)</sup>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부산대학교 어린이상담실 상담원

**Corresponding Author** : Eun Kyoung Goh, # 523, Sunghakgwan, Pusan National University, 30, Mountain, Jangjeondong, Geumjeong-gu, Busan 609-735, Korea  
E-mail : ekgo98@naver.com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이농현상의 증가로 인해 농촌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학급 수가 대폭 줄어들거나 통폐합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유치원은 혼합연령의 단일학급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공립유치원의 약 68.2%가 혼합연령반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데(최영남, 2005), 혼합연령반에서는 형제자매가 한 교실에서 함께 생활함으로써 유아들이 형제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같은 반 친구라는 복수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독특한 사회교육적 여건에서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도 손위형제, 특히 누나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동생에 대한 도움 제공자 역할이 더 요구될 수 있다.

생태학적 이론(Bronfenbrenner, 1979)의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의 형제들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미시체계 요인 중의 하나로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아동이 어릴수록 형제와의 상호작용과 관계는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유아는 형제자매관계를 통해 또래관계와 같은 호혜적 관계 특성과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위계적 관계 특성을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호혜성과 위계성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유아들은 중요한 사회적 집단관계의 원리들을 학습하게 된다. 특히 손위 형제들은 교사로서, 유능한 모델로서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 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유영주, 1998), 이러한 가르치는 행위 과정 중에 일어나는 형제와의 상호작용에서 이들은 사회적, 인지적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으며(Furman & Buhrmster, 1985), 형제간의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홍연립, 2000). 또한 부모의 역할을

일부 보완하는 존재로서, 특히 누나는 남동생을 더 많이 돌보아주고 우호적이며 도와주려는 태도를 많이 보인다(김미화, 1997; 김상희, 1990). 이러한 돌봄 행위는 돌보는 형제나 돌보아지는 형제 모두에게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증진시켜 또래와의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현정·조성연, 2002). 유아들은 형제관계에서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 있으며(김혜숙·박선환·박숙희·이주희·정미경, 2008), 이러한 부정적인 형제관계를 경험하는 유아들은 따뜻하고 애정 어린 형제관계를 가진 유아들과 비교해 볼 때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인다(Bank & Kahn, 1982; Cicirelli, 1995).

애착이론(Sroufe & Fleeson, 1986)에 따르면 형제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부모-자녀관계를 들 수 있는데,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형제간의 친밀하고 긍정적인 발달에 공헌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착이나 애정이 형제 중 특정 자녀에게 편중되면 형제관계는 이러한 부모-자녀의 관계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부모를 비롯한 주변 성인의 과도한 손위 형제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 또는 형제에 대한 불공평한 애정과 관심보이기 등은 부정적인 형제관계를 야기하거나 심화하는 것(이은하, 2005)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누나와 동생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편, 아동의 발달상의 부적응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른 부적응 양상도 개인마다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데(Pollard, Hawkins, & Arthur, 1999), 위험요인은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적 수준, 가족적인 수준, 개인적인 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Jessor, 1991; Luthar, 1991).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손위형제, 특히 누나에게 가사노동 및 형

제관계에 있어서의 돌봄 행동에 대한 역할 기대가 높았다. 이러한 돌봄 역할에 대한 부모의 과잉 기대는 누나도 동생처럼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간과하게 만들어 누나에게 높은 역할기대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이나 중압감과 같은 스트레스를 주게 되므로 누나의 원만한 성장발달에 작용하는 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다른 형제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누나의 역할과 발달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에 비해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되며, 여러 발달적 변화가 급격한 시점인 유아기 누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유아기 누나의 역할 수행에 관련된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없으므로, 일반적인 누나의 역할수행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해 유추해보고자 한다. 먼저, 딸들의 발달과 적응을 위한 자원을 아들들에게 양보하도록 강요하는 유교문화적 전통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권의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들의 의무와 권리가 딸보다 크며, 부모들이 아들에게 더 많은 가족자원을 배분해왔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가족 자원이 부족한 경우 여자형제는 남자형제의 교육과 학습을 도와주고 나아가 희생을 강요받는 역할을 떠맡았다(Greenhalgh, 1985; Koo, 1987; Lee & Lee, 1982; Parish & Willis, 1993). 우리나라의 경우도 딸들이 가사와 양육에 참여하고 가정의 경제활동까지 분담하는 역할을 요구받았고(이미정, 1998), 딸들에 대한 성차별적 문화는 산업화가 진전된 이후에도 한국 가족 문화의 배후에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여성·가족생활연구소, 2002). 특히, 이러한 딸 또는 누나 역할에 대한 기대나 성차별적 문화는 보수적이며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수용하는 속도가 늦은 농촌에서 도시보다 더욱 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

다. 오늘날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과거의 이 같은 문화적 특징 속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며, 오늘날에도 가정의 자원과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서 이러한 특징은 상당히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적 수준에서의 누나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는 최근에 자녀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어머니의 우울증(Field, Healy, Goldstein, & Guthertz, 1990; Cummings, 2008; 장은진·서민정·정철호, 2001)과 부모의 지적 장애(Seagull & Scheurer, 1986; Feldman & Walton-Allen, 1997; Gillberg & Geiger-Karlsson, 1993)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와 사고력의 제한으로 인해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누나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들은 위생 상태나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상호작용 기회의 부족, 부적절한 양육방식 및 형제나 또래관계에 대한 지도나 감독 결여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선교·안선희, 2006). 더욱이 저소득층은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임희섭, 2003) 자녀의 형제관계와 역할, 특히 누나의 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과도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개인적 수준에서 누나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는 무엇보다 아동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에 증가 추세를 보이는 소아 우울증(동양일보, 2009 4월 7일)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우울 성향의 아동들은 주로 슬픈 표정을 짓거나 무가치감, 수면 또는 식욕 장애, 피곤감, 짜증, 무표정, 흥미

상실, 무력감 및 반항적 행동 등이 나타나고 (Kashani, Holcomb, & Orvaschel, 1986),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해 부정적 신념을 가지며 문제해결 및 사회적 기술이 결핍되어 있다(Kaslow, Tanenbaum, Abramson, Peterson, & Seligman, 1983). 이러한 발달적, 행동적 자원의 부족은 남아에 비해 높은 관계적 능력의 발달이 기대되는 여아, 특히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보살핌의 역할을 많이 기대 받는 누나의 역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여러 수준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유아기 누나의 역할 및 형제관계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요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된 형제관계나 형제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의 관계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 왔으며(이은하, 2005), 학교와 같은 사회기관의 특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 교육적 여건이 유아 개인 및 가족적 위험요인과 맞물리게 되면 누나의 역할수행 경험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심리사회적 수준에서 서로 다른 위험요인을 가진 혼합연령반의 누나들이 경험하는 역할 수행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는 방안 뿐 아니라 유아 발달과 교육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기술적 접근을 통해 농촌지역 유치원의 혼합연령반에 재원 중이며 형제순위나 정신건강 문제 및 낮은 경제적 수준, 어머니의 정신건강 등 누나 역할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개인 및 가족적 위험요인을 가진 두 누나가 유치원 생활 중 남동생과의 관계에서 겪는 역할수행과 그에 따른 심리적 경험의 특징은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혼

합연령반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와 그들의 교사가 누나 역할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양육 및 지도에 관한 부모교육 및 교사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유치원 생활을 통해 본 서로 다른 개인 및 가족적 위험요인을 가진 두 누나의 역할 경험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기관 및 연구 참여자

#### 1) 연구 참여기관

본 연구의 참여기관은 최근에 도시 행정구역에 포함되었으나 교외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소재한 J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만 3세, 4세, 5세 총 19명과 담임교사 1명, 보조교사 1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합연령 학급이다. J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소속된 P시 H구의 경우, 2009년 현재 교외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총 11개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으며, 혼합연령 단일학급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은 8곳이었다. 그 중 5곳의 유치원에서 한 학급에 최대 4쌍, 총 11쌍 이상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연구참여기관인 J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전형적인 시골 유치원으로 인근에 바다도 보이는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공간이다.

####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J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혼합연령 학급에 재원 중인 2쌍의 누나와 남동생 모두 4명이었으며, 특히 누나들은 그들의 형제순위나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 낮은 경제적 수준 및 어머

<표 1> 연구 참여자 배경정보

연구 참여자	연령	형제관계	참여자 특성	가정환경
박채연	만 5세	누나 (셋째)	순위 형제가 모두 여자이며, 셋째 딸로 태어나 출생 때부터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했음. 특히 바로 아래 남동생(민한)이 태어나 사랑과 관심을 더욱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평소 어머니로부터 동생을 잘 챙기라는 말을 많이 들음. 영양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서인지 생활연령에 비해 매우 외소하고 키가 작은 편이며, 성격은 다소 외향적이고 밝은 편임.	저소득층 가정으로 (기초 생활수급자) 부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무뚝뚝하고 권위적인 성향을 지님. 모는 외향적으로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살펴볼 때 정신지체가 의심이 됨. 자녀양육은 대부분 모가 책임을 지는 편이고, 첫째 언니는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중이며 둘째 언니도 같은 학교에 재학 중임.
박민한	만 3세	남동생 (넷째)	형제 순위로는 넷째이지만 첫째 아들로 출생 후 초기에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음. 그러나 막내 남동생이 태어난 후, 많은 형제관계로 인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에서 배제된 상태임. 언어발달이 또래에 비해 늦은 편(이어문 또는 삼어문 수준)이며 누나에 대한 의존이 매우 강한 편임. 수줍음을 많이 타나 대체로 밝은 편임.	2남 3녀
백진희	만 4세	누나	교통사고를 겪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았고 모의 우울증이 본인과 동일시되어 소아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음. 조부모로부터 남동생과의 편애를 겪어왔으며, 부모의 가정폭력을 목격함. 모를 닮아서 또래에 비해 키가 큰 편이며 또래와의 어울림보다는 혼자놀이를 좋아하는 편임. 다소 내성적인 성향을 보이며 평소 또래 친구나 동생에게 짜증을 많이 내는 편임.	모는 시댁과의 갈등과 부부 관계 불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으로 병원(정신과) 치료를 3개월간 받았음. 신혼초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으나 고부갈등으로 인한 병원 치료로 인해 따로 분가함. 그 후엔 정신과 치료를 받지않음. 남편과 잦은 다툼을 하는 편이며, 과거 미용사였던 직업적 특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외모 꾸미기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는 편임.
백영진	만 3세	남동생	외아들로 조부모와 부의 관심과 사랑을 태어났을 때부터 한 몸에 받음. 생활연령에 비해 언어 발달이 다소 빠른 편(문장을 자유자재로 구사함)이며, 또래에 비해 키도 크고 몸집도 좋은 편임. 또래와의 관계도 좋은 편이며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늘 함께 있는 편임.	1남 1녀

\* 유아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됨.

니의 정신건강 등 누나 역할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개인 및 가족적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그들이 겪게 되는 역할수행과 그에 따른 심리적 경험의 특징은 위험요인의 누나 역할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고 지도와 양육에 관한 시사점 모색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

다. 이들의 배경 및 발달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 2. 자료수집

### 1) 참여관찰

본 연구는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연구를 위해 연구 대상 유치원의 담임

교사와 관찰일자, 시간을 함께 결정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도 서면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자의 신상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여 동의를 구했으며, 유아들을 평가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밝혔다. 참여관찰은 2009년 6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유치원의 여름방학과 특별한 행사일을 제외한 11주 동안 매주 1~2회씩 연구참여기관인 혼합연령 학급을 방문하여 오전 실내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내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관찰 시간으로 정한 이유는 다른 일과 활동 시간에 비해 놀이 선택이 자유롭고, 연구 참여자들 간의 자연스러운 언어적 상호작용이 잘 관찰될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었다. 이 학급의 실내 자유선택활동은 일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루어졌으며, 연구자 2인이 각각 형제 한 쌍의 놀이 장면을 17회씩 총 34시간 관찰하였다. 매 회 현장에서 관찰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기록 노트를 작성하였고 연구자의 느낌도 기록하였으며,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연결시키고 정리하기 위하여 관찰이 끝난 즉시 기록 노트를 대조하면서 그 전사내용을 컴퓨터로 입력하였다. 관찰시간 이후에 연구자들은 각자의 관찰기록에 대한 연구자간 토론 시간을 가졌다. 또한 관찰 장면을 다양화하고 다소 정형화된 교실 공간을 벗어난 자연스러운 장면에서 누나-동생 둘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 야외놀이 장면도 관찰하였다. 야외놀이는 2009년 8월 14일 유치원 인근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3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누나-동생 2쌍의 자유놀이와 함께, 연구자 2인이 계획한 야외활동(자연에서 찾은 색 놀이, 자연물 왕관 꾸미기, 누나-동생이 팀을 구성하여 자신들이 만든 왕관 찾기 놀이, 모래놀이 등)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야외놀이가 되기 위해 연구보조

자 1인 및 담임교사가 함께 참여하였고 이를 관찰하였다.

## 2) 면담자료 및 문서자료

형제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두 가정의 어머니,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정에서의 형제들의 행동 특성과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어머니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사전에 약속시간을 정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약 1시간 동안 수행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의 내용은 가족의 인적사항,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가족 양육 환경에 관련된 내용, 조부모나 부의 양육태도 및 (손)자녀에 대한 반응, 자녀를 유치원에 보낸 후의 자신의 생활 형태, 모의 유치원 참여정도, 자녀들의 장·단점, 가정에서의 행동특성, 형제 관계 및 친구관계, 자녀들에게 바라는 점, 유치원이나 교사에 대해 바라는 점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때 그 때 상황에 적절한 질문을 첨가하였다.

또한 유치원에서의 형제들의 행동 특성이나 친구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사 면담을 하였는데, 교사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수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비형식적 면담 외에도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층 면담을 1회 실시하였고 보완적으로 전화 면담도 3차례 실시하였다.

## 3. 자료분석 및 해석

### 1) 관찰자료

관찰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radley(2003)의 분석방법에 기초하여 연구자간 토론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문화기술적 연

구로 진행된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 수집을 마친 후에는 현장기록 노트와 전사된 면담 자료를 읽으면서 주제별로 부호화(coding)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핵심 어구의 내용들은 아이들이나 교사가 평소 자주 사용했던 상호작용들로 선정하였으며, 그 특징에 따라 범주와 주제가 선정되었다. 이는 현장저널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아이들의 언어(fork language)와 연구자들이 기록한 언어에 바탕하여 선정되었으며 남매의 상호작용 특징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선정되었다.

우선 연구자간 관찰 회의를 통해 먼저 수집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읽어 본 후 남매들의 상호작용 특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수집된 자료에서 남매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상을 메모하고 그 의미를 유추하였다. 셋째, 상호작용에 대한 인상과 의미에서 나온 단어들을 살펴본 후 반복적으로 자주 제시되는 단어들을 선별하여 비슷한 내용별로 묶었다. 넷째, 내용영역들에서 핵심어구를 도출하여 의미론적 관계에 따라 범주화하면서 연구 참여자인 남매들의 고유한 표현과 특징에 따라 개념화하면서 주제화가 이루어졌다. 다섯째, 주제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분석틀은 ‘위험요인을 가진 누나와 동생들의 상호작용 특징’이었고 이를 중심으로 ‘두 누나의 서로 다른 역할’ 및 ‘두 누나의 서로 다른 심리적 경험’이라는 범주가 도출되었다. ‘두 누나의 역할’에 대한 하위 범주로서 ‘돌봄과 챙김’, ‘놀이와 학습’이 도출되었으며, ‘누나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하위 범주로서 ‘남매관계에서의 누나의 심리’, ‘누나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도출되었다.

## 2) 면담자료 및 문서자료 분석

부모면담 기록지, 교사면담 기록지, 교사의 교육계획안, 유아의 가정환경보고서, 유아의 활동사진 및 결과물을 연구결과 분석에 참고하였다.

## 3) 그림자료 분석

연구 참여자의 심리적인 자아상과 가족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HTP(집-나무-사람 그림 검사) 및 KFD(동적 가족화 그림검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미술치료사와 발달 진단평가가사 함께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자료 분석의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 4. 연구결과의 진실성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찰자료 뿐만 아니라 부모,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와의 면담자료를 활용하였다. 관찰된 사례에서 궁금한 점을 점검하여 부모,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에게 보여주고 연구자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보완하였다. 또한 일일연락장, 주간 교육계획안, 일일 교육계획안, 유아들의 활동사진 및 결과물 등의 문서자료를 연구결과 분석에 참고하였다. 또한 유아교육 박사학위 소지자 1명과 박사 수료생 1명 등 동료 연구자들에게 자료 분석의 적절성을 검토 받는 과정을 거쳤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혼합연령 단일학급에 재원중인 위기가정 누나의 남동생과의 상호작용 특징을 참여 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 본 결과, 크게 ‘누나의 서로 다른 역할’과 ‘누나의 서로 다른 심리적 경험’이라는 2가지 범주로 묶여졌다. 연

<표 2> 위기 가정 누나의 남동생과의 상호작용 특징에 대한 범주와 주제

	핵심어구	하위범주	범주	주제
채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나가 해줄게(도와줄게)’</li> <li>• ‘엄마는 이렇게 해주는 거다’</li> <li>• ‘누나가 하는 거 봐봐’</li> <li>• ‘내꺼 써라’</li> </ul>	돌봄과 챙김	두 누나의 서로 다른 역할	위험요인에 따른 상당한 역할 수행
진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생이 옆에 있어도 대부분 무관심하며 혼자 놀이를 즐김</li> <li>• ‘(짜증스런 어투로) 니만 많이 하면 되나?’</li> </ul>	놀이와 학습		
채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이 하자’</li> <li>• ‘누나가 이거 멋지게 만들어 줄께. 두 명 타는 건데, 앞에는 내가 타고 뒤에는 니가 타라’</li> </ul>		남매 관계에서의 누나의 심리	두 누나의 서로 다른 심리적 경험
진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진이가 교사에게 누나가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자 진희가 교사에게 불려가서 훈계를 받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연 : ‘누나가 해줄까?’</li> <li>• 민한 : ‘도와줘’, ‘누나가 해 줘’</li> <li>• 교사 : ‘민한이가 혼자 할 수 없잖아’, ‘동생 좀 나뉘라’</li> </ul>	누나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희 : 동생에게 눈길을 거의 주지 않음</li> <li>• 영진 : 누나에게 도움을 잘 요청하지 않고 대부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왜 내보고 해달라고 하노?’</li> <li>• ‘아~ 짜증나.’</li> <li>• (짜증난 말투로) ‘아~정말! 이거 하면 되나?’</li> </ul>			

구결과의 범주 및 주제를 표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1. 두 누나의 서로 다른 역할 : 위험요인의 영향

채연과 진희는 동생에게 ‘돌봄과 챙김’, ‘놀이와 학습’에 대한 역할에 있어서 서로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1) 돌봄과 챙김

일반적으로 동생에 대한 누나의 기대역할 중 가장 큰 역할이 돌봄과 챙김의 역할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채연이는 많은 상황에서 동생을 돌보는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반면 진희는 동생에게 무관심하고 방임하는 누나

역할을 한다.

(1) 돌봄-엄마 역할을 하는 누나 : 채연

채연이는 동생에게 거의 엄마 같은 역할을 한다. 민한이가 요구하기도 전에 그가 해야 할 것을 직접 해주거나 지시를 한다. 이러한 역할 구조는 역할놀이 영역에서 잘 나타나며, 놀이 역할에 있어서도 대부분 민한이는 아이 역할을 하고 채연이는 엄마 역할을 한다.

채연 : (집 안에 영진, 강수, 민한이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음식 해줄게. 기다려” (플라스틱 집 안에 큰 탁자가 있어서 공간이 좁게 느껴졌는지 탁자를 들어서 밖으로 뺀 후 작은 탁자를 넣는다)  
 강수 : “고마워”  
 채연 : “엄마는 이렇게 해주는 거다.” (민한에게)



“민한아! 이거(냄비) 좀 놓아줄래? 뜨거워. 조심해!”  
 채연 : (민한이가 냄비를 갖다 놓는 것을 보고) “아이~! 잘했어”  
 민한 : (웃는다)  
 채연 : (접시 두개 위에 음식이 담겨진 것을 보고) “이것도...”  
 민한 : (식탁에 음식을 갖다 놓고 그 후 몇 번 더 갖다 놓는다)  
 채연 : “자~! 이제 먹으면 된다. 먹자!”  
 강수, 영진, 민한 : “잘 먹겠습니다. 냐냐... 아~! 맛있다”  
 채연 : (아이들이 먹는 것을 지켜본 후 다 먹고 집을 나가자 식탁에 남은 음식을 혼자 앉아서 먹는다.)  
 (역할놀이영역, 7월 29일)

위 사례의 마지막 장면에서 식탁에 남은 음식을 혼자 먹는 채연이의 모습은 실제 가정에서의 엄마 모습을 재연하는 것 같다. 자유놀이 시 채연은 대부분 동생을 돌보고 챙기는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KFD 그림에서도 막내 동생과 어머니 사이에 자신을 그려 넣음으로써 자신이 아기를 돌보는 엄마 역할을 일부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채연이는 유치원에서 자신이 엄마 역할을 대신 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어린 남동생은 항상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자신은 보살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채연이는 동생인 민한이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물질의 제공 및 문제해결에도 적극적인 편인데, 이는 다음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지혁, 강수, 영진이가 종이벽돌로 울타리를 쳐서 집을 만든다. 민한이가 들어가고 싶어하지만 친구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  
 민한 : (채연이를 보고) “언니야! 같이 안 놀아”  
 채연 : “니랑 같이 안 논다고?” (아이들에게 가서 민한이를 앉히라고 말하자 아이들이 자리가 없다고 한다) “거기 옆으로 좀 뺏기면 (당겨 앉으면) 되지”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자 옆에 있던 영진이의 칼을 가리키며)

“칼을 옆으로 치우고 니가 뺏기면 되지” (영진이가 칼을 치우자) “민한! 저기 앉아” (잠시 후 갑자기 생각이 난 듯 종이벽돌을 더 들고 와서 공간을 더 크게 만들어) “자~! 됐지? 넓지? 민한이 여기 앉아” (채연이가 쌓기놀이 영역을 종이벽돌로 에워싸서 영역 전체를 더 넓히며 한 채의 집을 만든다.)  
 (역할놀이영역, 6월 24일)

위 사례에서 살펴볼 때 채연이는 민한이가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래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여 놀이 영역을 넓히기도 하고, 동생이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 할 일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채연이는 자신이 민한이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하고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남동생에게 정보와 물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채연이와 민한이가 집에서는 자주 싸우는 편이라고 하였으며, 어머니가 민한이 편을 들수록 남매는 자주 싸우고 민한이 편을 들지 않으면 털 싸운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집에서 두 아들에게는 야단을 거의 치지 않는 반면 채연에게는 야단을 잘 친다고 하였다. 특히, 동생들을 챙기라고 하거나 가사일을 시키면 채연이는 부모의 말에 순종적이지 않고 다소 거부적이어서 야단을 많이 맞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집에서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는 채연이와 민한이가 유치원에서는 거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채연이는 매우 적극적인 돌봄 제공자 역할을 하는데 어머니가 동생을 돌보라고 강요하지 않는 상황, 즉 민한이의 편에 서서 자신에게 지시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정에서 누나 역할에 대한 사회화의 결과로 체화된 규범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2) 동생을 방임하며 자기욕구에 충실한 누나 : 진희

진희는 동생의 요구에 대부분 무관심하다. 이러한 누나의 태도 때문인지 영진이도 누나에게 요구하는 일이 거의 없고 어쩌다 한 번씩 멀리서 누나를 쳐다보기만 한다. 동생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진희는 마지못해 이를 들어주거나 동생의 요구를 귀찮아하며 대부분은 모른 척 회피한다. 이는 다음 예화에서 볼 수 있다.

진희 : (자전거타기 놀이를 하고 있는 자신에게 영진이가 옆으로 다가와도 모른 척하며 놀이에만 집중을 한다)

영진 : (영진은 채연이 근처에서 놀려고 한다. 채연이가 놀이기구를 하나 고르면 똑같은 놀이기구를 선택하여 놀이를 한다. 채연이와 진희가 '롤링웨스트'라는 운동기구를 하자 옆으로 가서) "나도 하고 싶다" (진희는 못 들은 척 한다)

채연 : (잠시 기구를 움직이다가) "영진아! 이거 해라" (자신의 자리를 비켜준다. 잠시 후 민환과 영진이를 보고 다른 운동기구를 가리키며) "애들아! 이거 타자."

진희 : (아이들이 모두 다른 운동기구 쪽으로 간 후 혼자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탄다) (야외 체육공원, 8월 14일)

위 사례를 보면 누나인 진희보다 오히려 양육적 규범을 체화한 채연이가 자기 동생과 함께 영진이를 돌보며, 동생 영진이 역시 진희가 자신의 요구나 바람을 들어주리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친누나인 진희보다 채연을 따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진희는 자신의 자원을 동생과 나누기를 거부하는 누나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음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영진 : (종이 블럭을 손으로 가리키며) "누나야! 나 2개만 줘."

진희 : "나도 없다."

영진 : (누나의 반응에 잠시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2개 더 필요한데..."

진희 : "나도 모지란다" (종이 블럭으로 자신이 만든 집을 가리키며) "나도 더 크게 만들어야 하는데 모자라서 작게 만들었다"

영진 : "그럼 1개만 줘. 내 필요한데..."

진희 : (짜증스러운 듯) "나도 이거 밖에 없었고..."

영진 : (한숨을 쉬며 낙담한 표정을 짓는다) (쌓기놀이영역, 8월 26일)

진희는 종이블럭을 빌려달라고 하는 동생의 제안과 부탁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바로 거절을 한다. 다시 한 번 더 동생이 물질의 제공을 요청하나 이에 대해 짜증 섞인 어투와 함께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진희는 동생을 방임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생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진희는 보수적인 농촌 마을에서 어머니와 친할머니가 겪는 고부갈등 및 부모 간의 잦은 부부싸움을 지켜보며 성장하였다. 남동생이 태어나자 어머니와 시댁과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아버지도 아들인 남동생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댁과의 심한 고부갈등으로 인해 어머니는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진희 자신도 교통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소아우울증 진단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은 경험 이 있다. 이러한 진희는 유치원의 생활에서 교사의 애정과 돌봄을 바라는 행동을 자주 보였는데, 교사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안아줄 것을 요구하거나,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었을 때 교사가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줄 때까지 말없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 등이 그것이다. 또한 같은 나이 또래의 다른 여아들에 비해 나이 어린 남아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돌보아주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진희는 아직 돌보아짐에 대한 욕구가 또래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누군가를 돌볼 만한 심리적 에너지가 부족하기에 일반적으로 기

대되는 누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친동생도 방  
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어머니와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집에서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진회를 많이 감싸는 반면  
영진은 많이 나무라는 편이라고 하였다. 어  
머니가 편애하는 누나에 대한 미움의 표현으로  
영진이 장난감 칼이나 총을 사용하거나 심지  
어 주먹으로 때려서 누나를 괴롭힌다고 하였  
다. 그러한 모습을 유치원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가정에서 형성된 동생에 대한 적대적  
인 감정이 자신의 자원을 동생과 공유하는 것  
에 거부 반응을 보이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  
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진회는 가정에서  
할머니와 아버지의 동생에 대한 편애와 우울  
증 성향을 가진 어머니에게 적절한 애정과 지  
지를 받지 못하므로 부모의 관여가 없는 유치  
원에서는 동생에 대한 냉정함과 적대감을 표  
현하고, 또한 가정에서 충족되지 않은 애정의  
욕구를 교사를 향해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놀이와 학습

누나의 역할 중에 기대되는 또 하나의 역할은  
동생과 함께 노는 놀이친구, 학습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채연이의 경우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대부분을 동생과 함께 놀거나 가르치는  
모습을 보인다. 놀잇감이나 시설물의 사용방법  
등을 알려줄 때는 누나가 모델의 역할을 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쳐주고 동생이 또래와 놀  
이하고 싶어할 때는 필요한 놀잇감을 제공해주  
기도 한다. 반면에 진회는 동생과 그가 하는 활  
동에 무심하고 자기 놀이에만 몰두하며, 동생 역  
시 누나의 활동과는 별개로 놀이하고 학습하는  
경향을 보인다.

(1) 함께 놀고 함께 학습하는 누나 : 채연  
채연이와 동생은 유치원에 등원한 후 대부분  
의 시간을 같은 영역에서 함께 보낸다. 보통 채  
연이가 먼저 놀이할 영역을 결정하면, 동생은 누  
나 뒤를 쫓아다니면서 누나가 제안하는 역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모방한다.

채연 : (영진과 민한이를 보고) “우리 엄마 놀이  
하지”

영진, 민한 : “응”

채연 : “난, 엄마!”

영진 : “난, 아빠!”

민한 : “난, 애기!”

채연 : “민한아~! 이 가방 안에 이거(숟가락, 포  
크들) 넣어라.”

민한 : (소꿉놀이 가방 안에 숟가락과 포크들을  
넣는다.)

- 중략 -

영진 : (구멍이 뚫린 원통 막대를 엄지손가락에  
끼워 넣으며) “내 손가락 이렇게 됐다. 내  
손가락 이렇게 됐다”

채연 : “손가락이 없어졌네... 민한아! 어떻게 하  
면 손가락이 다시 생기게?”

민한 : “어?”

채연 : “어떻게 하면 영진이 손가락이 다시 생기  
냐고?”

민한 : “몰라”

영진 : (원통 막대에서 손가락을 빼내어 보여주  
면서) “짜자잔!”

민한 : “하하하”

채연 : (영진에게 원통 막대를 달라고 한 후 민  
한에게) “민한아! 봐 봐.” (원통 막대에 손  
가락을 뺏다 넣었다 하는 모습을 반복해  
서 보여준다)

민한 : (웃으면서) “와~ 와~!”

채연 : (민한에게) “니도 해봐”

민한 : (누나가 가르쳐준 대로 따라한다)

채연, 민한, 영진 :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웃  
는다) (역할놀이영역, 6월 22일)

위의 사례에서도 채연이가 먼저 놀이를 제안  
하고 동생의 역할수행을 지정한다. 또한 놀이 상  
황에서도 채연이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해결  
을 위한 시범을 보여 민한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며 나아가 성취의 기쁨도 함께 공유한다. 누나로서 동생의 놀이와 학습에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돌보는 모습은 어린 유아들을 담당하는 교사 역할을 연상케 하는 세심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채연은 역할수행의 만족감을 얻는 것으로 여겨졌다.

(2) 따로 놀고 따로 학습하는 누나 : 진희

진희는 유치원에서 동생과 함께 놀이하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누나는 평소 동생의 요구에도 무관심하고 선호하는 놀이, 관심사 등도 동생과 다르다. 그래서인지 간혹 진희가 놀이를 제안해도 영진이가 이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영진이의 반응에 진희 역시 재차 제안하지 않고 다른 놀이를 한다. 한편, 영진이는 다른 또래들과는 놀이 제안도 잘 하고 놀이 반응도 활발하다.

진희 : (영진과 지혁을 보고) “우리 엄마놀이 할래?”  
 지혁 : “어~! 나는 아빠 할 게. 누나는 엄마해.”  
 영진 : “난 안할래”  
 진희 : “그럼 나는 하지마라.” (지혁과 역할놀이 영역으로 간다)

- 중략 -

영진 : (민한에게) “내 옷긴 거 보여줄 게” (공룡 꼬리를 잡고 공룡이 덩블링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민한 : “하하하~!”  
 영진 : “또 보여줄게.”  
 민한, 채연 : “하하하하~!”  
 영진 : (공룡 2마리를 들고 역할놀이 영역에 있는 지혁에게) “애들한테 빵빵해라”  
 지혁 : “빵빵~!” (총 쏘는 흉내를 낸다)  
 영진 : (공룡이 쓰러지며) “으~악!”  
 지혁, 영진 : “하하하” (큰 소리로 웃는다)  
 영진 : (다른 공룡 2마리를 또 들고 지혁에게 간다)  
 지혁 : “빵~ 빵~! 두두두두~!” (총 쏘는 흉내를 낸다)  
 영진 : “으~악!” (쓰러진다)  
 (쌓기놀이영역, 7월 27일)

진희와 영진이는 등원 시 원아수첩에 스티커를 붙이는 영역에서 잠시 같이 있을 뿐 그 순간을 제외하면 함께 있는 경우가 드물다. 영진이는 원아수첩에 자신이 스티커를 붙이고 싶어 하지만 진희는 그런 영진이를 밀치고 자신과 동생의 원아수첩에 스티커를 모두 혼자서 붙인 후 동생과 시선도 마주치지 않은 채 자신이 선호하는 놀이 영역으로 가버린다.

이런 거부적인 누나에 대해 영진이는 간혹 누나를 멀리서 쳐다볼 때도 있지만 그 즉시 누나에게 다가가지 않으며, 어쩌다 한 번씩 진희가 놀이 제안을 해와도 거부하고 따로 노는 모습을 보인다. 오히려 누나인 진희보다 채연이와 더 많이 어울리며 주로 또래 남자 아이들과 어울린다. 특히 또래와 어울릴 때는 누나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의 태도와는 달리 친근하고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놀이 확장도 잘 되는 편이며 놀이의 즐거움도 또래와 공유하는 편이다. 자신의 욕구 만족에 더 치중하고 동생을 배려하기 어려운 누나는 자주 따로 행동하게 되는 것으로 보였으며, 동생도 누나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두 누나의 서로 다른 심리적 경험: 그러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 누나들

서로 다른 위험요인에 따라 두 누나의 역할은 상반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누나와 동생의 상호적인 심리적 경험 역시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두 누나 모두 누나 역할 수행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애정적 지원이 필요하였지만, 그 스트레스원은 서로 달랐다.

1) 남매관계에서의 누나의 심리

(1) 동생의 의존심을 키우는 과잉보호의 심리  
 채연이는 동생에게 정보나 필요한 물건을 적

절히 제공해주면서 양육적인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행이 때로는 과할 때도 있어 동생이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빼기도 한다. 이로 인해 민한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없고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완수하지 못하며, 누나가 선택해주고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의존심을 보이고 있다.

채연 : (그림을 그리고 있는 민한이를 보고) “뭐 그리는데? 자동차?”

민한 : “응”

채연 : “누나가 해줄까?”

민한 : “응”

보조교사 : “채연아~! 민한이가 혼자 할 수 있게 좀 놔줘. 니가 다 해주면 민한이가 혼자 할 수 없잖아.”

채연 : “네.” (조형영역, 8월 12일)

민한 : (누나가 컴퓨터 영역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주변에서 누나의 행동을 계속 지켜본다. 교사가 민한이에게 다른 영역에 가서 놀 것을 권유하자 혼자 여러 흥미영역을 잠깐씩 기웃거리기는 하나, 누나를 수시로 쳐다보는 등 누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보조교사 : (한 가지 활동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민한을 보고) “민한아! 박민한! 뭐하고 있어요? 어느 영역에 가서 놀래?”

민한 : (그냥 미소만 짓는다)

보조교사 : “민한이가 하고 싶은 거 잘 살펴보고 해 봐.”

민한 : “네”

민한 : (교사가 다른 곳으로 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누나가 있는 컴퓨터영역으로 다시 가서 누나 뒤에 서 있다.)

채연 : “민한아! 우리 블록 할래?”

민한 : “응” (누나와 함께 쌓기놀이 영역으로 간다) (컴퓨터영역, 6월 17일)

채연이는 동생이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해줄까?”, “~할래?” 등의 어휘를 동생에게 많이 사용한다.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항

상 동생의 동태를 감지하는 안테나를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 이로 인해 동생 민한이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며 자신의 놀이를 결정하지 못한다. 위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교사가 민한에게 자유롭게 놀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민한은 오랜 시간동안 혼자 배회하거나 누나의 활동이 끝나기만을 바란다. 서로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시선은 누나에게 항상 고정되어있으며 자신의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누나의 보호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인다.

민한 : (화장실을 간다)

채연 : (동생을 따라가서 민한이가 소변을 다 볼 때까지 밖에서 기다린 후 변기에 물 내리는 것을 도와준다)

채연 : “바지 똑바로 올렸나?”

민한 : “응”

채연 : (민한이의 옷매무새를 살펴보며) “보자. 돌아봐봐” (옷을 똑바로 입힌다)

채연 : “가자.”

민한 : “응” (누나와 함께 수조작영역으로 간다) (화장실, 6월 24일)

채연의 과잉보호는 과제 수행뿐만 아니라 자조적인 기술을 요하는 장면에서도 민한이의 자립적·주도적 수행을 가로막아 민한이가 계속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한 단계 낮은 발달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교사는 민한이가 최소한의 자립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채연이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채연이 역시 항상 민한이를 과도하게 보살피기 때문에 민한이가 ‘더 늦되는’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채연과 민한 모두 또래들에 비해 전체적인 발달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신체발달과 언어발달에서의 지체를 보였다. 채연의 경우는 만 5세임

에도 불구하고 만 4세인 진희보다 키나 몸무게가 훨씬 적으며, 언어발달 수준도 또래들에 비해 발화양이나 어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민한 또한 키가 또래에 비해 작은 편이고 긴 문장을 발화하지 못하였으며 발음도 다소 부정확하여 언어발달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는데, 만 3세인 영진이보다 더 늦고 혼합반인이 학급의 모든 구성원 중 언어발달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처럼 누나의 과잉보호로 자신이 완수해야 할 과제나 자조활동까지도 누나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민한의 의존심은 다시 누나의 과잉보호를 불러일으키는 순환적 상승작용을 하면서 동생에게는 안정감을, 누나에게는 기대된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 완수의 만족감을 줌으로써 둘 간에는 교사의 지시나 도움도 효력이 없을 만큼 과잉보호-의존의 관계 틀이 견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연의 동생에 대한 과잉보호는 성인의 기대와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발달적으로는 채연 자신이 부모의 관심과 애정 어린 보살핌이 필요한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유아기 채연의 삶의 모습이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동생의 분리, 독립심을 키우는 무관심의 심리  
진희는 자기 친동생보다도 다른 남자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강수는 진희와 옆집에 사는 아이로 진희와 영진이 모두 강수와 친하게 지내며 어머니들끼리도 서로 자주 왕래하는 편이다. 평소 진희는 자신과 강수가 결혼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치원에서 강수에 대한 애정을 자주 표현한다. 또한 또래 여아들이 나이 어린 남자 아이들을 ‘아기’라고 귀여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본인도 뒤늦게 동참하여 애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자기 친동생에게 이러한 애정을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어 영진이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도록 만든다. 또한 영진이의 남자 친구들은 영진이가 요구하기도 전에 놀잇감의 필요성을 감지하여 자신의 놀잇감을 영진이와 함께 공유하려 하지만 누나인 진희는 소유욕이 강하여 자기 것을 먼저 챙김으로써 동생으로 하여금 내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든다.

강수 : (자신이 만든 블록을 영진이에게 보여주며) “이거 멋지제?”

영진 : “어! 내 꺼는?”

강수 : “니 꺼도 멋지다.”

진희 : “강수 니꺼 더 멋지다.”

영진 : (누나의 반응에 잠시 시무룩한 표정을 짓는다)

지혁 : (동그랗고 빨간 블록 1개를 영진에게 보여 주며) “이거 좋까?”

영진 : “어! 고마워!”

영진 : “또 필요한데... 또 필요한데...”

지혁 : “여기 있다. 여기” (영진에게 블록 1개를 더 준다)

영진 : (누나에게) “1개 줘. 내 필요한데...”

진희 : (짜증스러운 어투로) “나도 이거 밖에 없다.”

영진 : (한숨 쉬며 어깨를 조금 늘어뜨린다)

(쌓기놀이영역, 8월 26일)

영진이는 놀잇감을 함께 공유하고픈 마음에 누나에게 놀잇감의 사용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만 누나는 이러한 동생의 의도에 무관심함을 보인다. 동생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을 때야 비로소 반응을 하나 이 역시 다소 귀찮기도 하고 빨리 동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승낙을 말없이 몸짓으로 하게 된다. 이 때문에 느끼는 심리적 분리감으로 인해 간혹 누나가 놀이에 도움을 주려고 시도해도 영진이는 누나를 거부하고 혼자 하려고 하는 자기주장을 분명하게 한다.

진희 : (나사조립교구(black & decker)를 하고 있는 영진이가 1개를 잘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영진아! 내가 해줄까?”

영진 : “아니. 내가 할 수 있다.”  
 - 중략 -  
 진희 : “내가 해줄게”  
 영진 : “내가 할 수 있다” (혼자서 나사를 끼우고 풀기를 반복하다 마침내 나사를 모두 맞춘다)  
 영진 :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혼잣말로) “다 했다”  
 강수 : (영진이가 조립한 것을 보고) “이거 니가 다 했나?”  
 영진 : “응.”  
 강수 : “와! 멋지다”  
 영진 : (미소를 짓는다)  
 (쌓기놀이영역, 8월 12일)

진희와 영진이는 함께 놀이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는 영진이에 대한 진희의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며 영진이 역시 이러한 누나로부터 독립적으로 놀이한다. 자유선택활동 시간 시 진희는 주로 역할놀이 영역과 수조작 영역에서 놀이를 하며, 영진이는 쌓기놀이 영역에서 블록을 만들며 놀이한다. 블록 만들기를 좋아하는 영진이는 또래 남자 아이들에 비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블록을 만들어 또래에게 보여 주기를 좋아한다. 이에 또래 남아들은 영진이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며 옆에서 함께 만들기를 선호한다. 따라서 영진이가 블록을 만들기 시작하면 어느덧 그 주변에 남아들이 하나 둘씩 모여 앉게 된다. 영진이는 같은 연령의 또래 남아들에 비해 놀이 구성 능력도 뛰어나며 적어도 쌓기놀이 영역에서는 또래를 주도하는 능력을 보이고 있다.

누나의 동생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반응성에 의해 영진이는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고 누나의 서툰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하여 냉정하게 자기주장을 하기도 하면서 독립 수행에 점점 익숙해졌다. 누나로부터의 소외감을 또래에게 보상 받으려는 듯이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 적극성을 띄게 되면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

었다. 이러한 동생의 독립은 누나의 무관심과 상대적 발달 지체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와, 누나는 동생 뿐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도 점점 더 소원해지고 자기중심적 욕구 충족의 단계에서 발달이 정체된 유아로 자라고 있었다.

## 2) 누나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 (1) 가족의 역할기대로 인한 스트레스

위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유치원 생활 속에서의 채연은 동생 민한을 돌보고 보호하고 챙겨주는 역할을 스스로 하려고 한다. 하지만 성인으로부터 기대되는 누나의 역할에 대한 반응은 유치원과 가정에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 데,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통해 채연이가 가족으로부터 강요당하는 누나 역할로 인해 반발하고 거부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채연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동생을 잘 돌보아 한다는 압력을 받고있어서 그런지 가정에서는 민한을 잘 돌보고 챙겨주는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히려 동생과 자주 싸우는 편이고 부모가 동생을 좀 챙기라고 하거나 가사 일을 도우라고 하면, 부모의 말에 순종적이지 못하고 거부적이어서 혼계나 야단을 많이 맞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가족의 잦은 질책을 야기하는 유치원에서의 상반된 행동은 채연 자신이 셋째 딸로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누나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욕구는 배제된 채 동생에 대한 보살핌을 강요받을 때, 부모에게 반발심을 갖게 되고 역할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느껴졌다.

### (2) 스스로의 역할 인식으로 인한 스트레스

진희와 동생 영진이의 하루 일과를 보면 함께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누나는 동생의 요구에 무관심한 편이고 선호하는 놀이, 관심사 등

도 남매는 제각기 다르다. 하지만 가끔 누나에게 요구되는 역할기대를 의식하여 진희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동생의 요구에 응하기도 한다.

- 진희 : (블록쌓기를 놀이를 하고 있던 영진이 힘 들어하는 모습을 보자) 누나가 만들어줄게. 줘봐.  
 영진 : (누나에게 자신이 만들던 블록을 줌)  
 영진 : (진희가 블록을 가지고 이곳 저곳을 폼았다 뺏다를 반복하자 어떤 한 곳을 가리키며) 거기 폼아. 거기 폼아.  
 진희 : (영진이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이 폼고 싶은 곳에 블록을 폼음)  
 영진 : (누나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울음 섞인 화난 목소리로) 아~~! 거기 폼으라고! 거기 폼아!  
 진희 : 알았다. 알았다. 폼아줄게. (또 다른 곳을 가리키며) 여기는?  
 영진 : 싫어, 싫어.  
 영진 : (조금 지난 후 진희가 자기 마음대로 또 블록을 만들자 소리침) 누나! 누나! 누나!  
 진희 : (다소 짜증난 듯 통명스럽게) 왜?  
 영진 : (노란 블록 하나를 가리키며) 이거 빼 줘.  
 진희 : (짜증난 말투로) 아~! 정말! 이거 빼면 되나? 왜 내보고 해달라고 하노? 아이~!  
 영진 : (다소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응!  
 (쌓기놀이 영역, 8월 26일)

평소 동생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매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던 진희도 옆에 있던 동생 영진이가 블록 쌓는 것을 힘들어하자 누나임을 의식한 듯 자신이 먼저 “누나가 만들어 줄게”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와주려고 하고 동생의 요구나 제안을 들어주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 후 짜증을 내는 진희의 모습을 볼 때 누나로서 보살핌의 역할 수행이 부족하다는 것과, 자신만을 배려해 온 진희로서는 동생의 욕구나 관심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와 자신이 우울증을 겪은 진희는 우울

증과 관련된 경험들이 사회적 기능에 결함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Kaslow, Brown, & Mee, 1994) 행동 특성을 보이는데, 동생과의 상호작용에서 가끔씩 누나로서의 반응성과 보살핌이 부족함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보였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참여관찰과 면담을 중심으로 한 문화기술적 방법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병설유치원 혼합연령반에 재원 중인 서로 다른 개인 및 가족적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두 누나의 역할 경험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두 누나는 누나로서의 역할 수행과 누나-동생 관계에 관련된 심리적 경험이 서로 달랐다. 저소득층 가정의 셋째 딸인 채연은 동생에게 돌봄-엄마 역할을 하고 정보와 물질을 제공하며 동생과 함께 놀고 함께 학습하면서, 과잉보호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반면, 자신과 어머니의 우울증을 경험한 진희는 자기 욕구에 충실하여 동생을 방임하며 따로 놀고 따로 학습하는 등 동생에게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누나 역할수행의 차이는 누나-동생 관계에 관련된 심리적 경험에도 반영되었는데, 누나의 과잉보호로 동생이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거나 누나의 무관심으로 인해 동생은 분리·독립적인 심리적 특징을 보였다. 또한 누나들의 역할 수행에 관련된 스트레스원은 서로 다르나 모두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특징도 나타났다. 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누나의 서로 다른 역할 수행과 그에 따른 심리적 경험은 두 누나가 가진 위험요인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채연은 어머니의 낮은 지적 능력과 손위자매 중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형제자매 수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적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진희는 어머니의 우울증과 가정불화 그리고 자신의 교통사고 경험과 우울증 등 개인과 가족 수준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셋째 딸인 채연은 충분한 음식과 애정 그리고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으며, 그녀의 부모는 세 딸들이 모두 가사와 양육을 직접 도와야한다는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교사 보고에 의하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의 지원 부족으로 문화적 결핍을 경험하는 채연은 풍부한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또래에 비해 학업적 수행과 신체, 언어 발달이 지연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지적 장애를 가진 부모는 자녀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Seagull & Scheurer, 1986),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부적절한 양육은 유아 발달과 학교 적응의 지연을 초래한다(Feldman & Walton-Allen, 1997; 민하영·권기남, 2004; 정선교 외, 2006)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겪음으로써, 채연은 동생에 대한 돌봄의 역할 수행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분산될 수 있는 가정 내에서는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한 유아로서 동생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있는 그대로 표출한다. 그러나 부모와 언니들이 없는 유치원에서는 과할 정도로 보호와 돌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누나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인다. 이는 자원이 부족하고 가족 규모가 큰 경우 딸들이 부모, 특히 어머니의 역할을 분담하는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이미정, 1998). 셋째 딸이

라는 출생 조건과 부모의 위험요인은 누나로서의 역할에 대한 가족 및 자신의 과잉요구와 과도한 돌봄 역할의 기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그 결과 지나치리만큼 동생 위주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심리적 부담을 가진 채 자신의 욕구에 충실할 수 없는 삶을 채연이 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한편, 우울증과 가정불화를 경험하고 있는 진희의 어머니는 자녀들의 유치원 생활에 매우 무관심하였다. 우울한 부모는 자녀에게 강압적인 통제방법을 사용하여 훈육할 가능성이 있어 자녀의 행동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Coyne, Burchill, & Stiles, 1991; Field et al., 1990), 특히 우울증 어머니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부정적이고 비일관적이며 반응도 더 적고 더 부정적인 가능성이 있다(Field et al., 1990). 이러한 가족 내의 위험요인과 함께 남동생에 대한 가족의 편애로 인해 진희는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호와 애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힘들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누적된 애정 결핍의 경험은 우울증 등의 정서적 장애와 상승 작용하여 자신의 욕구에만 몰두한 채 일반적인 누나의 역할 행동인 돌봄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독특한 자기중심적 삶의 양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진희 어머니는 가정불화, 고부 갈등 및 우울증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진희의 발달적 어려움도 알고 있어 많은 책임을 지우지 않은 것도 동생에게 무관심한 누나로서의 행태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누나가 보이는 이러한 모습은 교사가 유아들의 적응과 문제행동을 지도할 때 가족의 위험요인 및 유아 발달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부모와 교육기관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준다.

둘째, 누나역할 수행에 있어 두 누나는 모두 공통적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주요 스트레스원과 그 이유는 서로 달랐다. 진희는 유치원 생활에서 교사로부터 동생을 더 잘 보살피라는 지적을 받는 반면, 채연이는 역할 기대가 높은 부모와 달리 교사로부터는 동생의 독립심을 길러줄 수 있도록 과잉보호를 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두 누나의 스트레스 반응의 양상은 달랐다. 채연의 경우 유치원에서는 동생을 잘 보살피지만 집에서는 오히려 동생을 괴롭히는 이중성을 보였고, 진희의 경우 가정에서보다는 유치원에서 역할 수행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었으며, 스스로 시도한 누나 역할이 익숙하지 않아 자신과 동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짜증을 내는 모습도 보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누나가 돌봄이나 챙김의 역할을 성인들로부터 기대 받고 있지만, 채연과 진희는 독특한 가족적,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그들 자신의 발달수준 이상으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누나 역할의 차이는 동생들의 심리적 발달에도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과잉보호하는 누나에 의해 민한이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무관심한 누나에 의해 영진이는 분리박탈감과 독립심이 길러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과잉보호의 양육 또는 돌봄은 자녀의 의존심과 불안 유발하며(Spokas & Heimberg, 2009) 무관심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독립심과 함께 공격성을 기르는데(Knutson & DeGarmo, 2004), 누나 역할은 어머니의 돌봄 역할과 그 맥락적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지므로 동생의 발달에 미치는 결과도 유사할 수 있다. 두 누나의 서로 다른 삶이 동생의 발달과 삶도 부분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두 누나와 동생의 생활 모습과 발달 특징을 통하여 혼합연령반에서 형

제관계와 또래관계를 동시에 경험하게 될 때, 유아교육기관에서는 형제가 경험하는 서로 다른 심리적 스트레스의 완화와 원만한 발달을 위하여 이러한 점을 반영한 적합한 심리적, 교육적 중재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위와 같은 역할 수행의 차이에는 두 누나의 역할에 영향을 주는 거시체계적 요인으로서 성역할 및 정체감에 대해 보수적인 농촌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징이 바탕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은 전통적인 유교문화권에서는 부모들이 아들에게 더 많은 가족자원을 배분하고 남자형제를 지원하기 위해 여자형제들의 희생을 강요하였으며(Greenhalgh, 1985; Koo, 1987; Lee & Lee, 1982; Parish et al, 1993; 여성·가족생활연구소, 2002; 이미정, 1998), 여성에 대한 희생의 요구가 농촌지역에서 더 분명하다(이옥희, 2005)는 사실은 두 가정의 맥락과 연결될 수 있다. 어머니들의 보고에 의하면 두 누나들은 공통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성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아버지가 남동생에 대한 편애를 보이고 누나들에게 제한적 양육태도를 보임으로써 남매 관계에 있어서 독특한 상호관계와 심리적 경험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대역할의 수행과 남매관계에 있어서의 특성은 남매가 같은 학급에서 생활함으로써 유치원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거나 그 관계의 양상이 가정에서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남아선호와 같은 가부장적인 사고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젊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아들보다 딸을 더 원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동아일보, 2010년 1월 13일; 육아정책연구소, 2010).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그 속도가 늦은 것

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남아선호는 가정 내 위험요인과 맞물려 가정생활 및 자녀교육에 관련된 발전적 인식과 역할수행의 긍정적 변화를 늦추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농촌지역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의 일상생활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나타나는 누나의 역할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가족생활에 대한 관찰이 필요할 수 있으나 어머니의 보고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한 점과 질적 연구로서 연구기간이 짧은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두 남매의 관계를 가정에서 벗어나 유치원 생활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두 누나의 역할 수행과 관련된 개인적, 가족적 위험요인과 지역의 사회문화적인 특징이 혼합연령반이라는 교육기관 요인과 연합되면서 독특한 두 누나의 역할 양태와 남매관계가 형성되고, 이로써 유아기에 있는 두 누나의 삶의 모습이 다름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적, 발달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던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 종단연구를 통하여 두 남매의 위와 같은 발달적 특징이 연령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지역 유치원 혼합연령반의 형제 각각을 대상으로 그들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형제관계의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김미화(1997).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상희(1990). 형제간 및 또래간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인구학적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혜숙·박선환·박숙희·이주희·정미경(2008). 인간관계론. 양서원.

동아일보. 2010년 1월 13일자. <스포츠라이트> 貴女시대.

동양일보. 2009년 4월 7일자. <홈닥터> 소아우울증.

민하영·권기남(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학회지**, 25(2), 81-92.

여성·가족생활연구소(2002). 한국가족의 불평등문화와 갈등구조: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유영주(1998). **가족관계학**. 서울: 까치.

육아정책연구소(2010). **국내정책동향**.

이미정(1998). 3세 유아의 행동억제와 그 관련변인: 영아기 정서성, 부모의 내향성,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옥희(2005). 농촌여성의 생산 및 재생산 노동에 대한 자기인식과 역할의 질적 접근: 상주지역을 중심으로. **영남학**, 7, 249-299.

이은하(2005). 남매관계 개선을 위한 부모-자녀 놀이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현정·조성연(2002). 형제·자매관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3(3), 139-150.

임희섭(2003).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사.

장은진·서민정·정철호(2001). 아동 우울에 관련된 요인 및 부모 우울과의 관계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지**, 12(2), 245-255.

정선교·안선희(2006). 보육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과 학습행동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4), 217-236.

최영남(2005). 농·어촌지역 공립유치원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홍연림(2000). 형제지위 변인과 형제관계가 아동의 성

- 격 특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nk, S., & Kahn, M. D. (1982). *The sibling bond*. NY : Basic Book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Cicirelli, V. G. (1995). *Sibling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 span*. NY : Plenum Press.
- Coyne, J. C., Burchill, S. A., & Stiles, W. B. (1991).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on depression. In C. R. Snyder & D. R. Forsyth (Eds.),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pp. 327-349). Elmsford, NY : Pergamon.
- Cummings, E. M. (2008).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children's representations of family relationships, and child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17*(2), 278-305.
- Feldman, M. A., & Walton-Allen, N. G. (1997). Effects of maternal mental retardation and poverty on intellectual academic and behavioral status of school-age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101*(4), 352-364.
- Field, T., Healy, B., Goldstein, S., & Gutherts, M. (1990). Behavior-state matching and synchrony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of nondepressed vs. depressed dyad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1), 7-14.
- Furman, W., & Buhrm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6), 1016-1024.
- Gilberg, C., & Geiger-Karlsson, M. (1993). Children born to mentally retarded women : A 1-21 year follow-up study of 41 cases. *Psychological Medicine, 13*, 891-894.
- Greenhalgh, Susan (1985). "Sexual Stratification : The Other Side of Growth with Equity in East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1*(2), 265-314.
- Jessor, R. (1991). Risk behavior in adolescence :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c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2*(8), 597-605.
- Kashani, J. H., Holcomb, W. R., & Orvaschel, H. (1986). Depress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preschool children from the general popul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9), 1138-1143.
- Kaslow, N. J., Tanenbaum, R. L., Abramson, L. Y., Peterson, C., & Seligman, M. E. P. (1983). Problem-solving deficits and depression symptoms among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1*(4), 497-502.
- Knutson, J. F., & DeGarmo, D. S. (2004). Social disadvantage and neglectful parenting as precursors to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and aggressive child behavior : Testing a theoretical model, *Aggressive Behavior, 30*(3), 187-205.
- Koo, Hagen (1987). "Women Factory Workers in Korea." pp. 101-112 in *Korean Women in Transition : At Home and Abroad*, edited by Eui-Young Yu and Earl H. Phillips, Center for Korean-American and Korean Studie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A.
- Lee, On-Jook and Hyo-Chai Lee (1982). *Marriage an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Korea*. Korean Culture Research Institute, Ehw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3), 600-616.
- Parish, William L., & Robert J. Willis (1993). "Daughters, Education, and Family Budgets : Taiwan Experience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8*(4), 863-898.
- Pollard, J. A., Hawkins, J. D., & Arthur, M. W. (1999). Risk and protection : Are both necessary

- to understand diverse behavioral outcomes in adolescence? *Social Work Research*, 23(8), 145-158.
- Seagull, E., & Scheurer, S. L. (1986). Neglected and abused children of mentally retarded parents. *Child Abuse Negl.*, 10(4), 493-500.
- Spokas, M., & Heimberg, R. G. (2009). Overprotective parenting, social anxiety, and external locus of control :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relationships, *Cognitive Therapy & Research*, 33(6), 543-551.
- Spradley, J. P. (2003). **문화기술적 면접법**(박종흡 역). *The ethnographic interview*. 서울 : 시그마프레스(원본발간일 1979년).
- Sroufe, L. 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 Rubin (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pp. 51-71).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10년 6월 28일 투고, 2010년 9월 14일 수정  
2010년 9월 15일 채택